

# 기습 폭우에 산사태·침수...수마가 할퀸 삶터 '망연자실'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에서 이틀 동안 최고 500mm가 넘는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2명이 목숨을 잃었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하고, 계곡 물이 불어 주택을 덮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농경지 2만여 ha가 침수되고, 주택 130동이 피해를 입었다. 하천 제방이 무너지고 불어난 강물로 교량 통행이 통제됐다. 폭우로 인한 피해 현장과 복구 현장 등을 생생히 전달한다. <편집자주>



**인도 덮친 나무** 호남지방에 밤새 장맛비가 내린 6일. 광주시 동구 시립산수도서관 앞 조경수가 쓰러지며 인도를 덮쳐 동구청 관계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라진 농경지** 6일 오전 진도군 진도를 농경지가 밤새 쏟아진 폭우로 침수돼 있다.

/독자 제공



**힘내세요! 수재민** 전날부터 내린 장맛비로 주택이 침수되어 마을회관으로 피신 온 해남 현산면 탐동마을 주민들에게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사에서 보내온 구호물품이 전달되고 있다.



**해남 월산마을 침수** 6일 오전 전남에 폭우가 내린 가운데 해남군 마산면 월산마을 일대가 침수돼 물이 성인 무릎 높이까지 차올라 있다. /독자 제공



**광주천 산책로 덮쳐** 호남지방에 밤새 장맛비가 내린 6일. 광주 서구 양동복개사가 인근 광주천 산책로 및 주차장 등이 갑자기 쏟아지는 비로 인해 잠겨있다.



**소들의 탈출** 6일 오전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의 한 축사가 폭우로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이 소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독자제공



**농기계도 잠기고** 6일 오전 진도군 진도를 도로가 밤새 쏟아진 폭우로 침수돼 있다.

/독자 제공